

5

월의 사양관리

♣ 축산연구소

일반 사양관리

계절적으로는 봄인데 요즘은 봄이 없어진 것 같이 기온이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벌써 여름이 온 것 같다. 젖소는 특히 더위에 약한 동물이라는 것은 낙농가라면 누구나 아는 일이다. 따라서 기상이변적인 특이 상황과 같은 갑작스러운 기온상승으로 젖소가 순간적인 고온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산유능력 저하 및 번식을 저하와 같은 커다란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더위에 대비하여 축사 환기시설, 보완 및 운동장에 그늘막 설치 준비를 한다.

청예사료 급여가 시작되는 시기로 호맥 청예를

갑자기 많이 주거나 방목을 오래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로 인해 설사를 일으키므로 청예사료를 급여할 때는 7~10일의 여유를 두고 급여량을 서서히 늘려주어야 한다. 건물섭취량 증대를 위하여 청초보다는 햇볕에 1~2일 말려 수분을 줄여서 충분히 급여하여 산유량 증대를 위한 사양관리를 한다. 청예급여 및 따뜻한 기후로 우유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므로 산유량이 늘어나고 채식량이 증가하나, 유지율이 떨어지고 젖소가 에너지 섭취가 부족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료급여량만을 증가시키는데 그치지 말고 사양표준을 다시 검토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조정해 준다.

사양관리

분만과 발정이 많은 계절이므로 분만 예정우와 발정우의 관찰을 오전 오후 착유 전에 20~30분 정도 실시하여 기록함으로써 분만을 및 번식을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개체별 산유량을 점검하고 유사비(유대 중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유사비는 낮을 수록 좋다)를 계산해 보고 사료값 등을 고려하여 저능력우와 번식장애 및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는 낙농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신속히 도태시키도록 한다. 따라서

젖소 개체관리기록부를 통한 개량, 번식, 영양, 질병상태 등과 축사시설의 환기, 분뇨처리, 착유시설, 운동장 시설 등을 종합 체크하여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물 섭취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젖소에게 수질이 나쁘거나 불충분한 물 급여는 우유생산량이나 성장을 제한할 수 있고,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깨끗한 물의 적절한 공급은 정상적인 반추위 기능과 사료섭취량 증가,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한다. 따라서 급수원의 물 공급량이 충분한지를 조사하고 물 저장탱크, 수도관의 부식여부 검사 및 수리를 해 준다. 만약

산유량이나 번식성적이 저하되고 우군의 건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원인을 모른다면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소에게 공급되는 물은 매년 대장균, pH, 질산염, 아질산염, 총 세균 등이 점검되어

야 한다. 특히 수질 문제가 의심스럽다면,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구충 및 발굽삭제를 실시한다. 소금 및 광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양관리에 유의한다.



방역 및 위생관리

5월말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이다. 정기적인 축사소독과 축사 출입구에 방역시설을 계속적으로 가동하여 사료운반차나 집유차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또한 분만이 많은 계절이므로 분만우 및 신생송아지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환경과 어미소로부터 질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병원균보다 먼저 양질의 초유가 체내에 흡수되도록 하여 건강한 송아지를 만들어야 한다. 젖소가 분만 후 24시간내에 분비하는 우유를 초유(初乳, colostrum)라고 하며, 초유에는 비타민 A, D, E 및 단백질 등 영양물질이 일반 우유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송아지 출생 후 빨리 급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초유에는 면역항체가 함유되어 있어 송아지가 각종 병원균에 대하여 저항 할 수 있게 하며, 태변 등 장내 잔류물의 배출을 촉진한다. 신생송아지 처치요령으로는 분만과 동시에 어미로부터 분리하고 온수(약 30℃)에 깨끗이 닦고 마른 타월로 콧구멍 속의 양수와 물기를 말린다. 송아지의 배꼽은 5cm 정도로 잘라주고 강옥도를 가지고 충분히 뿌려준다. 체중을 측정 후 초유를 빠른 시간 이내에 급여한다. 또한 전염병 예방백신접종 프로그램은 목장의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목장경영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송아지 및 후보축에게 권장되는 백신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여 접종하도록 한다.



초지 및 사료작물

심어 놓은 호맥 및 연맥을 이용하려는 농가에서는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사일레지를 담글 것인지 건초를 만들어 이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후작으로 옥수수를 파종하려면 옥수수 파종이 늦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파종을 완료하여 수확량을 높인다. 옥수수 및 수단그라스는 파종후 3~5일 이내에 잡초우점을 방제하기 위하여 ha당 라쏘 3,000ml +

싸마진 1,000ml를 물 1,200 l에 풀어서 전면 살포한다. 옥수수 추비시에는 옥수수 앞에 이슬이나 물기가 없을 때 포기에서 10~15cm 떨어진 곳에 포기마다 주되 잎이나 생장점에 비료가 닿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멸강나방 방제를 위하여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초지가 있는 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초지가 있어 방목을 하려는 농가에서는 목초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목구의 크기를 정하여 방목을 실시하되 처음부터 과방목이 되지 않도록 자주 옮겨준다. ☹